

## 이렇게 조사했다

동아시아연구원(<http://www.eai.or.kr>)은 이미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에 중앙일보 지면을 통해 한국, 미국, 멕시코 3개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외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사실 당시 미국의 CCFR은 400여명의 여론주도층 여론조사를 동시에 실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한국 여론주도층 여론조사는 그 후속작업의 일환이다. 여론주도층 여론조사의 경우 표본의 대표성, 조사방식에 일반여론조사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의 여론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미치는 영향력과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한다면 한국 대외정책의 방향 설정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핵심변수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다.

동아시아연구원은 대학교와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정치 분야 학자들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문모니터단, 그리고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을 정치분야 전문가집단으로 한정된 것은 3개국 여론조사의 설문문항들이 주로 국제정치분야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특정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사회적인 지위, 직급,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여론주도층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자칫 사회기득권층에 대한 여론조사로 귀결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이번 한국 정치분야 전문가의 대외인식 여론조사는 지난 3개국 대외인식 여론조사에 포함된 150여개의 방대한 설문문항을 동일하게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국제질서관, 한미관계,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 및 기본인식에 대한 문항들이 포함됨으로써 전문가 집단의 대외인식 정향과 정책적 태도 등을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번 전문가 여론조사는 한국 일반국민의 대외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사실 지난 일반국민 여론조사결과에서 조사결과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이중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였다. 대외인식 분야에 있어 비교적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전문가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일반국민 조사결과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해석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여론조사결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한미간의 외교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 여론주도층간의 인식을 상호 비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있다. 미국 전문가와 한국 전문가의 비교를 통해 양국의 대외정책 방향과 목표 수단에 등에 대한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총 364명의 학자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였으며 동아시아연구원의 정치사회여론조사센터와 외교안보센터가 공동으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덧붙여 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정치학자들의 경우 주로 동아시아연구원이 개발한 인터넷 여론조사 시스템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정치인들의 경우 면접법을 병행했음을 밝혀둔다.